

대처 음주의 개념과 측정: 대학생들 중심으로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보 연
삼육대학교대학원
상담교육학과

본고는 대처 음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들을 개발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서 음주의 개념을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의 참여자는 남녀 대학생 413명(남: 208, 여: 205)으로 연령 분포는 만 18세에서 31세($M=21.65$, $SD=2.05$) 사이였다. 본 연구를 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의 음주는 물론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동기, 사교성 향상 음주기대 및 긴장완화 음주기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처 음주를 측정하는 12문항은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문항 간의 내적일치도도 높았다. 대처음주는 특히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으며, 대학생의 스트레스의 변량을 7%가량밖에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처 음주의 개념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음주, 스트레스, 대처, 음주동기, 음주 기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Carey와 Correia(1997)도 음주를 다분히 목표지향 행동으로 보았다. 술을 마시는 동기가 확실히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속칭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혹은 “기분이 나빠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음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음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또한 음주가 스트레스나 그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해결하는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Bradizza, Reifman와 Barnes(1999)는 여러 음주 동기를 사교동기(social motives)와 대처동기(coping motive)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교동기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사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대처동기는 개인적 문제나 부정 정서를 해결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것으로 말한다. Cooper(1992)는 음주를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설명한다. 그는 술이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 줄 것이라는 인지적 기대가 음주의 원인이 라고 보았다. 더 일찍이 Conger(1956)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에 의해 발생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음주를 설명하면서 긴장완화(tension-reduction) 가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가설의 타당성은 여러 실증연구들(Brown, Christiansen, & Goldman, 1987; Corcoran & Parker, 1991; Greeley & Oei, 1999; Neavins, Adesso, & Suh, 2000)을 통해 입증되었고, 스트레스가 음주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은 연구로 지지되었다(박경민, 이민규, 2005). 생리학적으로도 알코올이 GABA(gamma-aminobutyric acid)의 수용기를 자극하여 진정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Santhakumar & Otis, 2007).

모든 사람들이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다. 남들의 압력에 못 이겨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Engs & Hanson, 1990). 또한 대처의 동기가 아닌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단순히 술이 주는 쾌감을 즐기기 위해 음주하기도 한다(Damaris, 1983). Bradizza 등(1999)이 구분한 것처럼 사교동기나 대처동기만으로 술을 마시는 동기를 요약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음주동기를 추구 방향과 근원의 소재로 구분하기도 한다(Cox & Klinger, 1990). Cox와 Klinger는 음주동기를 추구 방향성 차원에서 정적 강화

혹은 부정 강화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근원의 소재 차원에서 내적 동기 혹은 외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기분을 좋게 하거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내부로부터 온 정적 강화의 동기로 음주한 것이다. Cox와 Klinger는 이를 음주에 대한 고양동기(enhancement motives)라고 명명하였다.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외부로부터 온 정적 강화의 동기에 의해 음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음주에 대한 사교동기이다.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외부로부터 온 부정 강화의 동기에 의해 음주한 것이다. 타인의 권유 혹은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시는 동조동기(conformity motives)가 바로 그것이다. Cox와 Klinger는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을 대처동기에 의해 음주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내부로부터 온 부정 강화의 동기다.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적 결과, 즉 부정 정서나 그 외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음주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의 음주가 효과가 있는 것일까?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를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여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한 외적 혹은 내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p. 141)”으로 정의하였다. 대처는 “긴장에 의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Pearlin & Schooler, 1978, p. 2). 대처가 내외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대처 음주도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동기가 되어

술을 마실 경우 문제음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Carpenter & Hasin, 1999). 만약 그렇다면 대처를 위해 실행되는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Marlatt(1983)도 알코올 문제 재발의 70%가 문제 상황, 즉 스트레스 상황과 70%정도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 정서를 더 쉽게 경험하게 되는데, 분노와 좌절을 야기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알코올 중독의 재발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인지적 혹은 행동적 대처 자원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할 수 있다(Littleton, 1998). 음주가 이렇게 역기능적 결과를 낸다면, 대처의 동기로 행해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에 ‘대처’라는 표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Cox와 Klinger(1990)가 주장한 네 가지 음주 동기는 Cooper(1994)에 의해 이론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요인분석에서 고양동기, 사교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와 같은 네 요인이 검증되었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각 음주동기 요인들이 문제음주나 음주관련 변인들과 거의 동일한 관계를 보였으며(김명석, 서경현, 2003; 서경현, 김성민, 정구철, 2006),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도 대처동기가 다른 음주동기와 비교할 때 특출하지 않았다(박경민, 이민규, 2005). 이렇게 음주에 대한 대처동기 혹은 대처 음주의 개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대처 음주동기 측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

Perkins(1999)는 대학생의 음주동기를 측정하면서 대처 수단의 동기를 환경적 요구와 부정 정서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학업이나 업무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좌절감을 익으려는 수단으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와 같은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기 분류 모형과 Cooper(1994)의 음주동기 문항을 참고하여 실행우가 개발한 음주동기 설문지에서는 “슬플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리고 “기분이 울적할 때” 술을 마셨는지의 여부로 대처동기를 측정한다. 따라서 더 많은 문항으로 대처 음주동기가 아닌 대처 음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면 대처 음주의 개념화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본다.

김용석(2000)의 연구에서는 학업이나 업무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대학생이 전체 대상자 중에 35.0%, 편안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대학생이 41.1%, 좌절감을 익으려는 수단으로 술을 마신다는 대학생이 28.2%,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대학생이 20.9%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대처 음주동기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그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박경민, 이민규, 2005), 대처 음주를 더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들을 개발하여 그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대처 음주 문항들을 개발하고 대처 음주동기 및 음주 기대와 함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서 대처 음주 개념의 타당성을 탐색하였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13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의 경우 미성년자가 많고 음주력이 짧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미성년자로서의 음주 동기가 다양할 수 없고, 대처 차원으로서의 음주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 중에 남성이 208명(50.4%), 여성이 205명(49.6%)이었으며, 2학년이 201명(48.7%), 3학년이 137명(33.2%), 4학년이 75명(18.2%)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31세($M=21.65$, $SD=2.05$)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 중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235명(56.9%)이었고, 70명(16.9%)이 불교, 67명(16.2%)이 개신교(기독교), 37명이 천주교(9.0%)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4명(1.0%)은 그 외의 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요인분석과 적률상관분석이다.

조사 도구

대처 음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음주하고자 하는 동기는 음주동기이지 음주행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 음주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들을 고안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개발 과정에서 Cox와 Klinger(1988)의 음주 동기 분류 모형을 참고하여 8명의 음주 경험이 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집중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하여 문항들을 정리하고 알코올 중

독이나 음주 행동을 연구해 온 두 명의 학자들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선택된 12문항으로 대처 음주를 측정하였는데, 척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과 부분에 제시하였다.

대처 음주동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음주하는 동기, 즉 대처 음주동기는 신행우(1988)가 제작한 음주동기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음주동기 설문지는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기 분류 모형에 따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언어자료 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한 결과와 Cooper(1994)의 음주동기 문항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총 네 가지의 동기, 즉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교동기, 동조동기를 각각 4개 문항씩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대처동기만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들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처 음주동기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음주의 사교성 향상 기대와 긴장완화 기대: 참여자들이 음주 효과로 사교성 향상과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정도를 알코올 기대 설문지(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EQ; Christiansen, Goldman, & Inn, 1982)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향상과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 외에도 공격성과 성적 기능 향상의 기대도 측정한다. 이 척도가 본래 진위형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혜미, 김용석, 장승옥, 1999)에서 4문항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미 등의 연구에서 사교성 향상에 대한 기대(5문항)과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3문항)로 선

별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사교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91이었으며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는 .86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학생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전점구, 김교현 및 이준석(2000)의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는 대학생들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문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부정적인 생활사건만을 묘사하는 문항들을 보고 참여자가 지난 1년, 즉 12개월 동안 경험하였는지를 0--'전혀',

1--'보통', 2--'자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본래 50문항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경현과 이경순(2010)이 전점구 등의 척도개발 연구에서 각 요인 중 요인부하량이 높았던 3문항씩을 선별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총 24문항이고,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1~.84 수준이었고 전체 스트레스는 .89이었다.

결 과

대처 음주의 요인의 구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의 음주, 즉 대처 음주의 요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축요인 방법(principal axis

표 1. 대처 음주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와 내적일치도 (N=413)

문항	요인부하량	
	1	R^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을 마시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746	.557
내 울적한 기분을 술이 해결해 줄 때가 많다.	.778	.605
나는 화가 날 때 술을 마신다.	.773	.598
술을 마시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다.	.864	.746
남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는 술을 마시는 편이다.	.850	.723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나는 술을 찾는다.	.814	.662
힘든 상황에서는 술 생각이 난다.	.757	.574
불안하면 나는 술을 찾는다.	.805	.648
나는 술로 스트레스를 푼다.	.832	.692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나는 술을 마신다.	.857	.735
나에게 있어서 술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도구이다.	.858	.736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술을 찾곤 한다.	.822	.676
Eigenvalues	7.953	
% of Variance	66.272	
Cronbach's α	.951	

factoring)에 의해서 요인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고유가(eigen value)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과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aiser-Meyer-Olkin(KMO)값이 .938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는 자료의 상관성이 요인분석에 적합성을 보장하였다. 요인 수가 1개로 수렴되어 직각 회전은 필요 없었으며(eigen values=7.95), 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6.3%가량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가 .95로 매우 높았다.

대처 음주와 대처 음주동기, 음주 기대 및 스트레스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처 음주가 대처 음주동기, 음주에 대한 사교성 향상 기대와 긴장 완화 기대, 그리고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부정적 반응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처 음주와 대처 음주동기 그리고 음주기대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대처 음주는 대처 음주동기와 약 50%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r=.70, p<.001$. 그리고 음주에 대한 사교성 향상 기대($r=.46, p<.001$)와 긴장완화 기대($r=.45, p<.001$)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가 사교성을 향상시키거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대처 음주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결과이다. 역으로 대처 음주가 음주의 사교성 향상 기대나 긴장완화 기대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음주를 대처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사교성 향상이나 긴장완화 기대와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음주 대처가 긴장완화의 부적 강화의 기대는 물론 사교성 향상 같은 정적 강화와도 비슷한 수준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대처 음주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6, p<.001$.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

표 2. 대학생의 대처 음주동기, 음주기대 및 대처 음주와 스트레스 간의 상관행렬 (N=413)

변인	대처 음주 동기	사교성 향상 기대	긴장 완화 기대	대처 음주
사교성 향상 기대	.43***			
긴장완화 기대	.37***	.55***		
대처 음주	.70***	.46***	.45***	
경제문제 스트레스	.17***	.21***	.20***	.24***
이성과의 스트레스	.19***	.09	.11*	.25***
교수와의 스트레스	.12*	.16**	.11*	.21***
가족과의 스트레스	.09	.11*	.20***	.20***
장래문제 스트레스	.05	.22**	.14**	.11*
가치관문제 스트레스	.10*	.22***	.15**	.13**
학업문제 스트레스	.01	.09	-.01	.06
친구와의 스트레스	.14**	.13**	.19***	.21***
(전체) 스트레스	.16**	.24***	.20***	.26***

* $p<.05$, ** $p<.01$, *** $p<.001$.

레스가 대처 음주와 상관이 있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모든 대인관계, 즉 이성친구, 교수, 가족, 친구 사이에서의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와 상관계수 .20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대처 음주와 상관이 없었다($r=.06, n.s.$). 한편 대처 음주동기와 스트레스가 공변하는 양($r=.16, p<.01$)보다 대처 음주가 스트레스와 공변하는 양이 더 컸다.

대처 음주가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6.76% 정도만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대처 음주의 10%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 차원에서 음주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음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대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논 의

음주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더 만연되어 있는데다가(신행우, 2009; Rabow & Duncan-Schill, 1995), 한국 대학생의 음주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의 음주를 탐구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젊은 시절 획득한 음주 습관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생애 전반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의 음주에 관해 고찰하였다.

Cox와 Klinger(1990)의 음주동기 개념의 타당성을 입증한 Cooper(1992, 1994)는 술을 마시는

주요 이유가 정서적 경험을 조절하려는 욕구라고 주장하면서 각 음주동기가 서로 다른 선행 요인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Cooper의 주장대로라면 음주의 고양동기, 동조동기 및 사교동기와 대처동기 간의 선행 요인이 다를 것이고 대처동기에도 다양한 선행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주동기 측정도구의 하위척도 4 문항으로 대처 음주동기를 측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대처 조건과 관련된 음주 행동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처 음주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수렴된 것은 구성개념의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높은 내적일치도는 대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음주의 개념을 지지하는 듯 보인다.

김용석(2000)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40%가량이 대처동기를 가지고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대처 음주는 스트레스와 변량을 7%정도 밖에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지숙과 이봉재(2009)의 연구에서도 대처 음주동기와 일상적 스트레스는 6%의 변량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이한 결과는 아니다. 김용석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실제 보고한 것과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가 공유하는 변량의 차이가 큰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 비음주자와 음주 경험이 많지 않거나 생리적으로 알코올을 해독하지 못하여 음주를 꺼리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0% 정도의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음주한다고 지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외 사람의 자료가 상관의 강도를 희석시켰을 수 있다.

몇몇의 학자들(Carpenter & Hasin, 1999;

Marlatt, 1983)이 주장한 것처럼 대처 음주가 일반적인 음주가 아닌 문제음주와 더 상관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가 문제성 음주자나 알코올중독자에게서 더 강한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경민과 이민규(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음주빈도나 음주량에 대한 대처동기를 포함한 네 가지 음주동기의 설명력이 크지 않았지만 서경현 등(2006)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수준을 45%가량이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 혹은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덧붙여 대처 음주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양보다 스트레스의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남용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어 그것의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인지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 간에 선형적 관계는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 간의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대처 음주가 Cox와 Klinger(1990)가 설명한 것처럼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해 음주하는 것이고 스트레스에 의해 생긴 부정적인 반응을 없애는 부적 강화의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정적 강화의 기대인 사교성 향상 기대보다 긴장완화 기대와 더 상관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처 동기의 개념이 무의미해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처 음주가 스트레스 중에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더 상관이 있었던 것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교성 향상의 기대를

쾌락 추구차원이 아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차원이라고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음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화 되어 있고 실증 연구들(박경민, 이민규, 2005; 서경현, 김성민, 2009; Cooper, 1992)에서도 스트레스가 음주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대처 음주 개념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논리도 있다. 대처 음주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하는 증거들도 있다. 예를 들어 서경현 등(2006)의 연구에서는 음주동기 중에 외부로부터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음주하게 된 동조동기를 제외하면 대처동기 뿐 아니라 사교동기나 고양동기 모두 문제음주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그렇다면 대처 음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음주 행동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대처 음주를 하는 사람이 음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처 차원의 음주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대처 음주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주 혹은 문제음주 수준을 측정하여 그것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처가 내외적 요구, 즉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처 음주가 긍정적 결과를 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음주를 대처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행동주의적 견지에서 보면 어떤 이득이 감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음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른 대처 자원이 없을 때 단기적 전략으로 음주를 선택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내는 것이 음주일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알코올의 단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대처 음주를 조명해 볼 필요도 있다. 또한 음주가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 반응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Cooper, 1992), 적극적 망각 같은 회피적 대처 방식이나 정서중심 대처 방식들과 대처 음주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면 한다. 한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검증한 대처 음주의 개념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첫 음주를 시작하고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시기라 음주 동기가 다양할 수 있고 음주를 많이 하는 집단이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연령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명석, 서경현 (2003). 폭력범죄자의 반사회성과 문제 음주 및 음주동기와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 54-60.
-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음주문제간의 관계: 경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사회사업*, 9(1), 5-23.
- 박경민,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 277-293.
- 서경현, 김성민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지*, 10, 33-43.
- 서경현, 김성민, 정구철 (2006).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성별, 음주가족력과 대학생의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607-626.
- 서경현, 이경순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 비교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327-343.
- 신행우 (2009). 대학생 음주규범 지각과 음주 및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871-890.
- 윤혜미, 김용석, 장승욱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8, 153-179.
- 이지숙, 이봉재 (2009).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동기가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의 A시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 1-21.
- 전검규,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316-33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위식행태조사.
- Bradizza, C. M., Reifman, A., & Barnes G. M. (1999). Social and coping reasons for drinking: Predicting alcohol misuse in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491-507.
- Brown, S. A., Christiansen, B. A., & Goldman, M. S. (1987). The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n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and adult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483-491.
- Carey, K. B., & Correia, C. J. (1997). Drinking motives predict alcohol-related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1), 100-105.
- Carpenter, K. M., & Hasin, D. S. (1999). Drinking to cope with negative affect and DSM-IV alcohol use disorders: A test of three alternative explanatio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694-704.
- Christiansen, B. A., Goldman, M. S. & Inn, A. (1982). The development of alcohol-related expectancies in adolescents: Separating pharmacological from social learning influ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0, 336-344.
- Conger, J. J. (1956). Alcoholism: Theory, problem and challenge: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 296-305.
- Cooper, M. L. (1992).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 alcohol expectancies: Stress &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152.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 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rcoran, K. J., & Parker, P. S. (1988).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tension reduction scale as a predictor of alcohol consumption in a stressful situation. *Addictive Behaviors*, 16, 1991. pp. 129-137.
- Cox, M., & Klinger, E. (1990). Incentive motivation, affective change and alcohol use a model In M. Cox (Ed), *Why people drink?* New York: Gardner Press. 291-311.
- Damaris, J. R. (1983). Drinking habits experiences about alcohol's effects for self vs others. *Journal of Clinical & Consulting Psychology*, 51, 752-756.
- Engs, R., & Hanson, D. (1990).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patterns an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5, 36-47.
- Greeley, J., & Oei, T. (1999). Alcohol and tension reduction. pp. 14-53 in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ttleton, J. (1998). Relapse prevention.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2, 22-23.
- Marlatt, G. A. (1983). Stress as a determinant of excessive drinking and relapse. In L. Pohorecky, & J. Brick (Eds.), *Stress and alcohol use* (pp. 279-294).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 Inc.
- Neavins, T. M., Adesso, V. J., & Suh, K. H.: Predictors of Alcohol Consumption (2000). Tension-Reduction Expectancies, Gender, and Hardines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 1-9.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s*, 18, 2-21.
- Perkins, H. W. (1999). Stress-motivated drinking in collegiate and post-collegiate young adulthood: Life course and gender patter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219 - 227.
- Rabow, J. & Duncan-Schill, M. (1995).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rug and Alcohol Education*, 40, 52-64.
- Santhakumar, V., Wallner, M., & Otis, T. S. (2007). Ethanol acts directly on extra-synaptic subtypes of GABA receptors to increase tonic inhibition. *Alcohol*, 41, 211-221.

원고접수일: 2011년 10월 16일

게재결정일: 2011년 11월 2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 Vol. 16, No. 4, 815 - 825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Alcohol Use as Coping of College Students

Kyung-Hyun Suh Bo-Youn Kim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alcohol use as coping, developing items which measure alcohol use as coping with stresses directly. Participants were 413 college students (208 males and 205 females) whose ages ranged from 18 to 31 ($M=21.65$, $SD=2.05$). For this study, coping motives for alcohol use, and expectancy of enhancing sociality and tension-reduction from alcohol use as well as life stresses of college students and alcohol use as coping.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12 items of measuring alcohol use as coping retained just 1 factor and showed satisfactory internal consistency. Especially, alcohol use as coping was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stresses, and it only accounted approximately 7% variance of life stresses of college students. Concept of alcohol use as coping was discussed with results of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Keywords: alcohol use, stress, coping, motivation for alcohol use, alcohol expectancy